

● 새 해 斷 想

大學圖書館 文化의 現住所

한 상 완

홍대 중앙도서관 사서과장

소박하게 몇가지를 생각하며 새 해를 맞고 싶다. 대학 정신문화의 주역을 맡는 대학사서라는 직분으로 개인적 혹은 단체적으로 해 나가는 공동의 작업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충족되고 바람직한 차원의 과거와 현실을 이룩했고, 이루고 있느냐고 한다면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선은 대학사서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미리 정립하지도, 精神文化界의 주목되지도 않는 한 빈터에 서서 그 알찬 풍토가 어떠해야 하는가도, 그 작업의 성과는 무엇이 어야함도 아직은 얘기하지 말자. 다만 근본적인 몇가지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10여년을 전후하여 줄곧 早期放學이라는 病에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학은 학문연구를 무기로 삼는다. 이 연구 결과라는 도구를 통하여 사회개선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의식의 개발과 빛나는 혜지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 정선된 자료를 갖추는 대신 형식적인 도서관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형식적 예산배분과 도서관다운 건물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대학가의 현상 극복을 위하여 당국이나 경영자는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설할 의욕을 갖고 있는가. 모든 자료가 나라와 언어 더 나아가선 이데오로기의 장벽없이 연구에 제공될 수 있는 채널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가.

이러한 여러가지 관점에서 닫혀 있는 도서관을 어디에 쓸 것인가. 理想의인 대학도서관을 만들어 젊은 지성인들의 예지와 영혼의 깊이를 천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는 조국을 튼튼한 반석에 안주시킬 창조력을 길러 줄 기틀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어쩌면 대학가의 미아인 대학사서를 우리 자신이라고 자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엄청난 理想의 피안에서 눈 멀어 있는 현실을 밝게 띄울 용기를 갈망한다. “빛은 東方에서”라고 읊은 시인의 소리가 있다. 이 삭막한 현실, 그리고 一元的 思考方法 만이 숨

릴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文化와 양심의 그림자마저 지워지려하는 영토에서, 대학사서인 우리는 감히 다음과 같이 외쳐야 한다. “빛은 진리의 샘, 도서관에서”라고. 좌절할 수 만은 없는 개혁과 文化創造의 소임이 우리에게 부여되었기에. 또한 이 곳을, 대학의 중추적인 연구의 요람인 도서관을 키워야 할 당위성이 너무나 진실하기에.

소매를 걸어 부치자. 스스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를 하자. 정규 대학원 과정의 연구와 결하여 탐구하고 발전하는 매일 매일의 노력이 최소한 10배는 더 요청된다.

또 한가지의 절박한 얘기는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각자가 속한 대학사회 심층부에 대한 더 효율적인 발언을 위해서도, 위정자들의 開眼을 위해서도. 지난해 국립대학 도서관장 및 사서장 회의는 희망적인 활동이었다고 본다. 이에 비해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는 일종의 바람빠질 시간이 가까웠던 풍선이 아니었는지. 진보하지 않는 단체, 생동하지 못하는 조직은 시간의 낭비 내지는 진정한 의미의 창조적 발전에 대한 장애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오직 한가지 힘을 모아야 될 이유는, 대학의 자유로운 연구와 발전, 그리고 풍요롭고 의미있는 삶의 터전을 닦기 위한 대학의 두뇌와 중추가 될 수 있는 대학도서관이란 생명체를 창조하기 위해서이다.

새 해가 왔다. 어두운 이 나라의 정신문화 현상과 문 닫힌 대학의 한 주변에서 우리는 대학도서관 문화, 즉 대학사서의 임무와 성취되어야 할 과업까지를 통털어 이렇게 불렀을 때, 과연 그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담백하게 함께 생각했다. 가장 어려운 역경이야 말로 가장 순결하고, 어찌면 위대한 새 경지를 잉태할 요람이 될 것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이 현실을 직시하자. 피하지 말자. 부딪쳐 깨어지는 일그러진 고통이 있더라도. 이 부서짐은 어느 새 변형된 새 생명으로 대학도서관 문화를 꽃피울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므로.